

SKC, 유럽 PU시스템하우스 준공

SKC가 유럽 PU(Polyurethane) 시스템하우스를 준공했다.

SKC(대표 박장석·최신원)는 폴란드 남서부 경제특구에 위치한 SKC 폴란드 플랜트(SKC Europe PU)에서 11월22일 폴리우레탄 시스템하우스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생산능력은 2만톤에 달하고 7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건설됐으며, 2010년 5월 미국 조지아의 폴리우레탄 시스템하우스 준공에 이은 것이다.

SKC 관계자는 “2011년 이후에도 동남아와 인디아 등에 시스템하우스를 추가 건설할 예정”이라며 “2013년까지 베이징(Beijing)을 포함해 6개 글로벌 기지의 생산능력을 10만톤으로 확대함으로써 3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0/12/6〉